

# 광주시, 평동산단 중심 뿌리산업 특화단지 재편

## 금형특화단지 AX·DX 인력 양성

## 용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추진

광주시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평동산단 '용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산업통상부에 평동일반

산업단지 내 '용접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접·접합은 지역 핵심산업인 미래차와 가전산업의 핵심 공정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관련 기업 간 협력과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이후에는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혁신 활동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 (AX)·디지털 전환 (DX) 기반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지원을 핵심으로 지역 금형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금형 설계 인력이 최근 5년 동안 60% 감소(614→190명)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8년 지정돼 운영 중인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는 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 입주 상황과 산업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평동일반산업단지 2만1천㎡(약 6만1천평)를 '금형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이번에 '용접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가 추진하게 된다.

용접특화단지는 4월 평가, 5월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심의, 6월 지정고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은 4월 평가·선정 후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운영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3월 공모 신청과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상반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뿌리산업 혁신 생태계를 지속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광주권 농협조합장들과 만나 광주 농업인들의 고충과 제안을 경청했다. <김영록 예비후보측 제공>

## 김영록 “특별시장 되면 광주 농업 두텁게 지원”

### 광주권 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 “특별시 농민 위한 획기적인 정책 발표”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권 농협조합장 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특히 광주 농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농업인의 수가 2만 5천여명에 달하지만 대도시권에 속해 있어 농어민 수당 등 전남지역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합장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김영록 협의회 회장(서창농협 조합장)은 “심지어 광주 외곽 전남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마저도 단지 주수지가 광주라는 이유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조합장도 “직불금을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아니라 농지 소유주가 받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농산물검사소에 사법경찰관을 부여해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영록 예비후보는 “과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때 모두가 어렵다고 한 과격적 쌀값 인상, 농수산물 가격이 상한 상황 등을 단숨

에 해냈던 경험이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통합돼 특별시가 된 만큼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과 똑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는 물론, 특별시 전체 농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농업, 수산업 등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농민들도 AI와 농업의 결합 등 기술 혁신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의회 도정질의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11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이병훈 “동부권, 통합특별시 핵심 성장축 육성”

### 순천시 동부권 발전전략 발표

이병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동부권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순천 패션거리에서 전남 동부권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권을 산업·행정·물류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청사를 전남도·광주시청사 수준의 행정 거점으로 확대해 동부권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



해 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진흥원 신설, 2차전지와 수소발전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다각화 전략도 제시했다.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는 경전선 순천 구간 전철화와 지하화 사업 조기 완공, 여수·광양 항만과 연계한 산업 물류 거점 강화,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권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기자

## 정준호 “광주·전남 60분 단일생활권 연결”

###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1일 광주와 전남 전역을 60분 내 이동이 가능한 단일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대중교통 통행시간은 승용차 대비 최대 43배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효천역을 경유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반영하고 전남 구간 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또한 수도권 GTX와 유사한 성능의 광역광역철도(HTX) 도입을 통해 광주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약 3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 12개 시·군 거점을 잇는 '호남권 순환광역철도망' 구축 구상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광역광역버스(M버스) 체계를 도입해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을 실질적인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라며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광주교통문화연구소가

#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

CMYK